



'냉랭'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보수 통합 '탄핵의 강' 건널까

보수재건 3원칙 교감... 탈당 3년만에 통합 논의 급물살 각 당 내부 반발·안철수 합류 여부·공천권 다툼 등은 변수

13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칙'에 교감을 이루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보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3원칙 수용에 대해 이날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화답하고, 새보수당이 즉각 이를 인정하면서 양당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게 됐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0여명의 집단 탈당으로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합까지 넘어야 할 산은 수도룩하다. 우선 통합과 관련한 각 당 내부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국당 안팎에서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 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의외로 크다는 점은 향

후 논의에서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공화당의 통합 참여 여부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무소속 서정원 의원은 이날 한국당 김우석 당 대표 상근특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 등을 겨냥해 "탄핵과 보수분열의 책임을 질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대통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집회 세력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다.

창당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새보수당에서도 통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한국당과의 통합은 결국 돌고 돌아 간판만 바뀌는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혁신 없이는 국민 시각에서는 새

로울 것이 없는 보수정당간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요구해온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여부에 대한 인정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반발도 있다.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창당한 지 1주일이 갓 지났는데, 이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며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가역적인 명문화를 통해 일을 추진해도 못 미더운 판에 구체적 표현 없는 말의 향연으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귀국이 임박한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도 변수다. 통합 논의에 이은 통합신당 결성 작업이 무르익을수록 치열한 지분 다툼도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공천권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향후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도 기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 /연합뉴스

화순군의원 8명 김병원 지지선언



화순군의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들 간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특정 후보 집단 지지 선언이어서 향후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병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8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이제 지역민들은 일자리와 지역의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장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63) 의원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기표(67·행정고시 19회) 전 법제처 차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낙점된 서 의원은 경남 양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올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기표 선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와 경희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분야를 맡는 김 부위원장은 2018년 초 사임한 이상민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2년여 간의 공백이 해소된 셈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총선 라운지

장병완 "광주 인재 양성·일자리 만들기 최선"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지난 11일 오후 남구문예회관에서 토코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인 홍영표, 이인영 의원,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이 영상메시지를 전했고, 현장에도 박지원, 천정배, 김경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호남예산지킴이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남구를 비롯해 광주·전남의 산업, 문화, 환경지도를 확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의 미래를 만들고, 인재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에너지 신산업 육성 주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광주동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정부지원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광주 남구 대촌권역에 중점 육성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에너지형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광주 남구에 100년 일자리인 에너지형 일자리 창출이 현실로 다가왔다. 저 이정희가 광주 남구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형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남 "전남·일신방직 이전 공익 우선 협상"

정의당 이승남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13일 "일제강점기 호남의 목화와 석탄,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 있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근현대사의 영욕의 세월을 간직한 두 방직회사의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동안 먼지와 석면가루, 소음 등에 시달려온 임동 주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다"면서 "광주시 또한 지역주민과 시민의 이익에 맞게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북구를 4차산업 교육 허브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교육연구정보원과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를 북구 오치동 자연과학고로 유치해 북구를 '4차산업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이 부지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원 이전을 통한 자체 리모델링이 말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원과 진로센터를 북구 오치동에 유치해 AI집적단지과 연계된 '4차산업 교육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국회 입성하면 마을공동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국회에 입성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직접민주주의 뿌리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광산구 직능별 릴레이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산구 지역의 직능별 단체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번 직능별 의견 수렴은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 등 광산구 지역 전반의 현안과 의제를 끌어내 '이용빈의 반가운 캠프(이용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공약화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이 일하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광주형일자리 안정적 정착 노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직접 챙겼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특별법 통과로 탄력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이 그동안 고군분투 해왔는데,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더 많은 분들이 광주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내일 목포상고서 북 토크 콘서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의 의정활동 첫 출판기념회(북 토크 콘서트)가 오는 15일 오후 3시 목포 목상고등학교 인동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방송인 개그우먼 김미화씨의 사회로 저자와의 북 토크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의 증서 질문 등을 통해서 아내, 목포 발전, 가족 등 저자 박지원 전 대표의 평소 생각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에 아내를 그리는 책을 냈는데 언론은 물론 부부, 특히 여성분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목포에서도 이 책을 접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목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G.O. 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은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트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